



북한방송 주요논조

2014.3.6(목)
통 일 부
(정 세 분 석 국)

● 대남동향

- '민족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청탁하는 방법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고 동족 간에 불신과 대결만을 증대시킬 뿐'이라며 '온 겨레가 민족대 단결 5대방침에서 제시된 대로 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해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'고 선동(3.5, 중앙통신·노동신문·중앙방송/민족단합의 원칙과 방도를 제시한 불멸의 대강)

※ 민족대단결 5대 방침 : △민족자주의 원칙 견지 △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단결 △남북관계 개선 △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△온민족이 서로 적극 대화하고 연대·연합 강화

● 대내동향

- '토지개혁법령' 발표 68돌 즈음 '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, 총동원하여 만 풍년의 새 역사를 펼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것이 당의 의도'라며 '전당, 전국, 전민의 농촌지원으로 만풍년의 노랫소리 울려 퍼지게 하자'고 독려(3.5, 중앙통신·노동신문·중앙방송/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)

* '농업의 발전을 떠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도,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'며 '농업생산에 획기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독려(3.5, 중앙통신)

- '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, 망국의 길'이라며 '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 수 없다'고 강조하고 '전쟁 억제력은 우리 민족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력한 보검'이라고 주장(3.5, 중앙통신·노동신문·중앙방송/강력한 자위적 힘은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) 1 -

- 【중앙선거위원회 보도(3.5)】 중앙선거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 회의들에서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정확히 등록하였음을 보도(3.6, 중앙통신·중앙방송)
- 위성과학자거리 착공을 위한 군민궐기모임, 3월 5일 국가과학원 김일성동상 앞에서 진행(3.5, 중앙통신)
 - 장정남, 로두철, 리철만(내각 부총리) 등이 참석한 가운데 黨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전달
 - 김정은 黨 제1비서는 지난 1월 ‘국가과학원’을 현지지도 하면서 은정과학지구에 과학자거리 건설을 지시하고 ‘위성과학자거리’로 명명해 주었으며, 黨 창건일(10.10)까지 완공하라는 ‘전투명령’을 하달
-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에 의해 駐태국 北대사에 ‘문성모’ 임명(3.5, 중앙통신·중앙방송)
-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시인들,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(3.9)에 즈음하여 시들(백두산 그 이름으로, 그이는 우리의 대의원이다 등)을 창작(3.5, 중앙통신)
 - * 北 각지에서 ‘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선전(3.5, 중앙통신)
- 北, 3월 3일 제29차 ‘평양시 과학기술축전(3.3~7)’ 개막(3.5, 중앙통신)
 - 지난 시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자료를, 250여종의 첨단기술 제품들이 실물과 모형, 도해형태로 전시되어 있다고 소개
- 北, 만경대구역에 ‘버섯공장이 건설되어 대대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(3.5, 중앙방송)
 - *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, 용매도간석지 4호 중간방조제 완공(3.5, 중앙방송)
 - *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회안탄광병원, 탄부들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‘의료봉사활동’ 진행(3.5, 평양방송)
- 北 ‘이성금’ 선수, 2014년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(3.4~12, 태국)에서 세계신기록 수립(3.5, 중앙통신·중앙방송)

● 대외동향

- 【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(3.5)】 전략군 부대들의 화력단위별 훈련 계획에 따른 로켓발사훈련(2.21~3.4)을 ‘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 항해 질서와 생태환경에 사소한 영향도 줌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였다’며 ‘미국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걸고드는 악습을 버리라’고 주장(3.5,중앙통신·중앙방송·평양방송/미국은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)
 -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정정당당한 로켓발사훈련에 대해 도발이요, 위협이요 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, 우리 핵문제까지 집요하게 걸고드는 어리석은 궤변을 함부로 늘어놓지 말아야 함.
- ‘미국의 인권유린범죄가 세계도처에 악성종양처럼 뻗치고 있다’며 ‘반테러의 간판 밑에 감행하고 있는 군사적 간섭과 전쟁행위는 최악의 국가테러범죄, 최대의 인권유린행위’라고 비난하고 “세계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꿰어앉혀야 할 주범”이라고 강조(3.5,중앙통신/범람하는 미국의 해외판 인권유린범죄)
- 미국의 ‘주한미군 무력을 제외(2.26 美국방성 부장관대리의 발언)’한 해외 주둔 미군무력의 감축을 발표한 것은 “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대조선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흉심에서였다”고 비난(3.5,평양방송/감출 수 없는 흉심)